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7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7

시절 인연	02	미래 사회에 대비한 종단 교육의 방향과 역할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6	성인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1	비슬지리 韓瑟胝羅 거사
법정 스님 편지	14	비가 내리고 있소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6	오두막 편지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새와 나무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7월 1일 발행 / 통권 353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나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미래 사회에 대비한 종단 교육의 방향과 역할

선우도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해 온 ‘교육을 통한 올바른 승가상 정립과 승풍진작’의 과제는, 우리가 한결같이 관심을 두고 추구하고 탐구하고 실천해야 할 영원한 명제라고 생각된다.

중생계가 끝이 없듯이, 승가도 다양한 계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승가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바람직한 승풍이 진작 되기는 실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에 발 벗고 뛰어드는 선우도량의 도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제도권 불교종단에 대해서 오래전에 관심을 철회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내세울 주장도 경륜도 갖고 있지 않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싶다.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제목에 상관없이 젊은 도반들이 하는 일에 혼수를 보내는 뜻으로 몇 마디 거들고자 한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50년대 불교종단 정화운동이래 종단 교육 문제에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수없이 논의해 왔지만, 아직도 다시 논의해야 할 만큼 종단 교육의 문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가 될 말이지만, 실행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앞선다.

종단 자체가 기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언저리에 걸려 있는 종헌이나 종법이 현실 승가에 얼마만 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구체적인 낱말 승가의 청정도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행과 정진이 종헌·종법보다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절을 맡아서 꾸려 가는 실력자들(주지나 방장, 조실 혹은 강주나 선원장)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제도나 방안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 종단의 어려운 실정임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종단 교육을 실현하려면 그 실력자들의 의식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뜻과 경륜을 지닌 젊은 청정한 수행자들이 큰 원을 세우고 그 소임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거라고 여겨진다.

지계 정신은 수행의 근본 방향

종단 교육의 방향은 일찍이 불타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바가 소박한 표현으로 초기 경전과 율장에 되풀이되어 실려 있다. 불교佛敎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또한 ‘부처님이 되는 길(佛道)’이다.

따라서 교육은 곧 수행으로 이어져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서양에서 흘러들어온 근대적인 말이고, 일찍이 종교의 세계에서는 님(修)과 실천(行)을 하나로 보았다.

『장아함長阿含 반니원경般泥洹經』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선정禪定을 닦으며 지혜를 구하라.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지혜를 구하는 이는 애욕에 얽혀들지 않으므로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

“계·정·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고 잡된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 한다.”

같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 계행戒行이 있으면 저절로 선정禪定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밝아질 것이다. 이를테면 흰 천에 물감을 들여야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되는 것과 같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가리켜 삼학三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배울 바라는 뜻에서다. 그러므로 종단 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이 삼학을 배우고 익히며 실현하는 데에 있다. 이 삼학을 등지거나 소홀히 하면서 종단 교육을 의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과 같다.

불교도의 기본적인 계율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듯이 5계다. 즉, 산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갖지 않으며(불로소득도 마땅히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음란한 짓을 범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음이다.

불행히도 오늘의 한국 승가는 계행을 지니는 이 지계持戒 정신이 너무도 박약하다. 교육과 수행의 근본 바탕인 이 계행이 박약하다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허약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낱낱이 그 사례를 들출 필요도 없이 출가 수행자가 자신의 생활 규범을 어기는 것은 승가의 생명인 청정성의 결여를 의미

한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유훈으로 남긴 ‘계로써 스승 삼으라’는 가르침은 청정 승가의 제일 명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계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종단 교육은 결코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계행이 있으면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밝아질 것이다’고 한 계·정·혜의 삼학의 상관관계를 모든 수행자들은 거듭거듭 새겨들어야 한다.

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미래지향적인 종교교육

흔히 선정을 선원에서만 닦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이런 오해 때문에 오늘의 한국 불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선정은 모든 교육과 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의 또 다른 이름이 삼매(三昧)요 정수(正受)이므로, 이 삼매와 정수는 순일한 정진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삼매 현전은 굳이 선원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저마다 처해있는 현장에서 일상적인 정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 이 글은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을 위해 결연한 수행공동체 ‘선우도량’이 1995년 8월 21일~23일 남원 실상사에서 개최한, 제9차 수련결사에서 발표한 법정스님의 기조연설문입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종단 교육의 방향과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수련결사에서는 선우도량과 교육관계자 스님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법정스님의 기조연설과 ‘조계종단 승단 교육의 당면과제(현응스님)’, ‘지방 승가대 발전 방향과 역할(지운스님)’, ‘중앙승가대 발전 방향과 역할(금정스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정스님의 기조연설문은 승가와 재가를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글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성인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 207-221에 대한 강론입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 덧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 청소를 한바탕 했다. 마침 FM 라디오에서는 비발디의 ‘봄’이 흘러나왔다. 맑고 투명한 선율에는 비발디 나름의 은밀한 슬픔이 배어 있는 것 같다.

이 ‘봄’의 소리를 들었음인지 숲에서 새들이 몇 마리 날아와 태산목 가지에서 뭐라 재잘거리었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모양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이 우주가 별이고 있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서 차를 한잔 마실까 하다가 그만두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었다. 요-요마의 연주. 며칠 전 광주 베토벤 음악실에서 녹음해서 보내온 것. 봄밤에 첼로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마음 한구석에 연두빛 밀물이 고이려고 한다. 음악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호흡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들 자신도 맑고 투명해진다. 작은 우주의 호흡이 된다.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한다. 이슬람교의 위대한 신비가 하산 이 바야흐로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임종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하산, 당신의 스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천정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에게는 수천수만의 스승이 계셨다. 그분들의 이름만 늘어놓는 데에도 몇 달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시간을 놓쳐 버리고 만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스승만큼은 그대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싶다.”

하산은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 스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어느 날 나는 여행 중이었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시간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가게며 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어떤 길모퉁이서 담에 구멍을 뚫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룻밤 머물 곳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어디서 머물 곳을 찾겠소? 당신이 나 같은 도둑과 함께 있는 것이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소.’

그 도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그 도둑과 함께 지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나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여기서 푹 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가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라도 흠쳤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곤 했다.

‘오늘 밤은 실패했소. 하지만 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 밤에 나는 다시 시도해 볼 것이오.’

그는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담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는 행복에 넘쳤다.

나는 수년 동안 명상과 사색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이런 때 나는 번번이 깊은 절망에 빠져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럴 때면 문득 밤마다 이처럼 말하던 그 도둑이 생각났다.

‘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아마도 내일은 뭔가 소득이 있을 것이 오…?’

성인聖人에 대해서 읽다가 문득 하산이 임종의 자리에서 말한 그의 스승인 도둑 이야기가 떠올라 여기에 소개한 것이다. 도둑이면서도 그는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는 신(우주질서라고 해도 상관 없다.)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다시 시도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승 중에서 하필이면 도둑을 유일한 스승으로 임종의 자리에서 상기할 만큼 그에게는 커다란 감화를 끼쳤던 모양이다.

임종의 자리에까지 미룰 것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스승을 지칭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것인가. 지금까지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 준 그런 스승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삭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통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성인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예수, 공자,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인류의 정신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그런 분들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은 것처럼 거창하고 거룩한 인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 규범 안에서 투철한 질서를 지니고 살아가는, 때 묻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아

평안에 도달한 자유인을 말하고 있다. 거룩한 인격이기보다는 성숙한 인품을 성인으로 보고 있다.

번뇌된 집착이건 일어나는 근원을 살피어 거기에 물들거나 얽매이지 않으면 사람은 본래부터 지녀온 자신의 천성을 드러 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밝고 신령스러운 불성(佛性, 혹은 靈性)을 지녔다 할지라도 한 생각 꼭 막히어 매이거나 갇히게 되면 윤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만다.

성인은 ‘홀로 행하며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거나 의존해 버릇하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낼 기약이 없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줄 모르는 것은 게으른 탓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철한 자기 삶의 질서를 지니고 사는 자주적인 인간은 남의 말에 팔리지 않는다. 누가 귀에 거슬리는 비난을 하건, 달콤한 칭찬을 하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나오는 상관이 없다. 누가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가. 지나가는 한때의 ‘바람’임을 알아야 한다. 일시적인 바람에 속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람을 향해서 화내고 희희거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거나 인형일 것이다.

그런 ‘바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자제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들뜨기 쉬운 감정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理性을 지닌 사람이므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자제란 무엇인가. 타율에 의해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니다. 자제란 자신의 질서다. 그리고 내 삶의 양식樣式이다. 자신의 질서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을 괴롭힐 수 없으며, 또한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을 일도 없다.

사람이 몇 사람만 모이면 흔히 남의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로 노닥거리기 일쑤다. 경전 읽기 모임에 몇 차례 나왔다가, 이런 모임도 별수 없구나 하고 집에서 혼자 경전을 읽는다는 회원을 나는 몇 사람 알고 있다.

경전 읽기 모임의 지표는 다 알다시피 “먼저 깨달으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이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닫고, 무엇을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나온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나누라는 뜻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우리들 일상의 삶에 용해될 때 깨달음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깨달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지혜와 자비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위는 자신의 모습과는 십만 팔천 리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거듭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독경의 공덕을 입게 될 것이다.

3.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비슬지라 鞞瑟胝羅 거사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가다가 선도성에 이르러 거사의 집을 찾았다. 공손히 절을 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거사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는데, 이름이 열반에 들지 않음이다. 나는 이와 같이 여래가 이미 열반에 들었다거나 지금 열반에 든다거나 앞으로 열반에 들 것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나는 시방十方 모든 세계의 여래들이 끝내 열반에 드는 이가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그와 같이 보일 뿐이다.

내가 전단좌여래의 탐문을 열 때 삼매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불종무진佛種無盡이다. 나는 생각마다 이 삼매에 들어 한량없이 뛰어난 일들을 안다.”

선재가 물었다.

“이 삼매는 그 경지가 어떠합니까?”

거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 삼매에 들어 차례대로 이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을 보았

다. 가섭불迦葉佛·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구류손불拘留孫佛·
 시기불尸葉佛·비바시불毘婆尸佛·제사불提舍佛·불사불弗沙佛·
 무상승불無上勝佛·무상연화불無上蓮華佛, 이런 분들을 비롯해
 잠깐 동안에 백 부처님을 보고, 천 부처님을 보고,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차례로 다 본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처음으로 발심하고 선근을 심고 뛰어난
 신통을 얻고 큰 원을 성취하며, 심오한 행을 닦고 바라밀을
 갖추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청정한 법의 지혜를 얻고, 마군들
 의 행복을 받고 정각을 이루어 국토가 청정하고 대중이 에워싸
 고 있음을 본다. 큰 광명을 놓고 심오한 법륜을 굴리며 신통
 변화하는 갖가지 현상을 내가 다 지니고 기억하고 관찰하고 분
 별해 나타낸다. 미래의 미륵불과 현재의 비로자나불 등 모든
 부처님도 다 그와 같이 하며, 이 세계에서처럼 시방세계에 계시
 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성문, 독각, 보살들도 그와
 같이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들이 얻는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
 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한 생각의 지혜로
 삼세를 두루 알고 잠깐 동안에 모든 삼매에 두루 들어간다. 여래
 의 지혜해[智日]로 항상 그 마음을 비추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하며, 여래와 나와 중생이 평등해
 둘이 없으며, 법의 자성이 청정함을 알며, 생각도 없고 움직임
 도 없지만 세간에 두루 들어가며, 분별을 떠나 부처님의 법인
 法印에 머물러 법계의 중생들을 널리 깨닫게 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보타락가산이 있는데, 거기에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 있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리고 나서 계송을 읊었다.

바다 위에 산이 있어 성현들 계시니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아주 청정한 곳
 꽃과 과수들이 우거져 있고
 샘과 못과 시냇물이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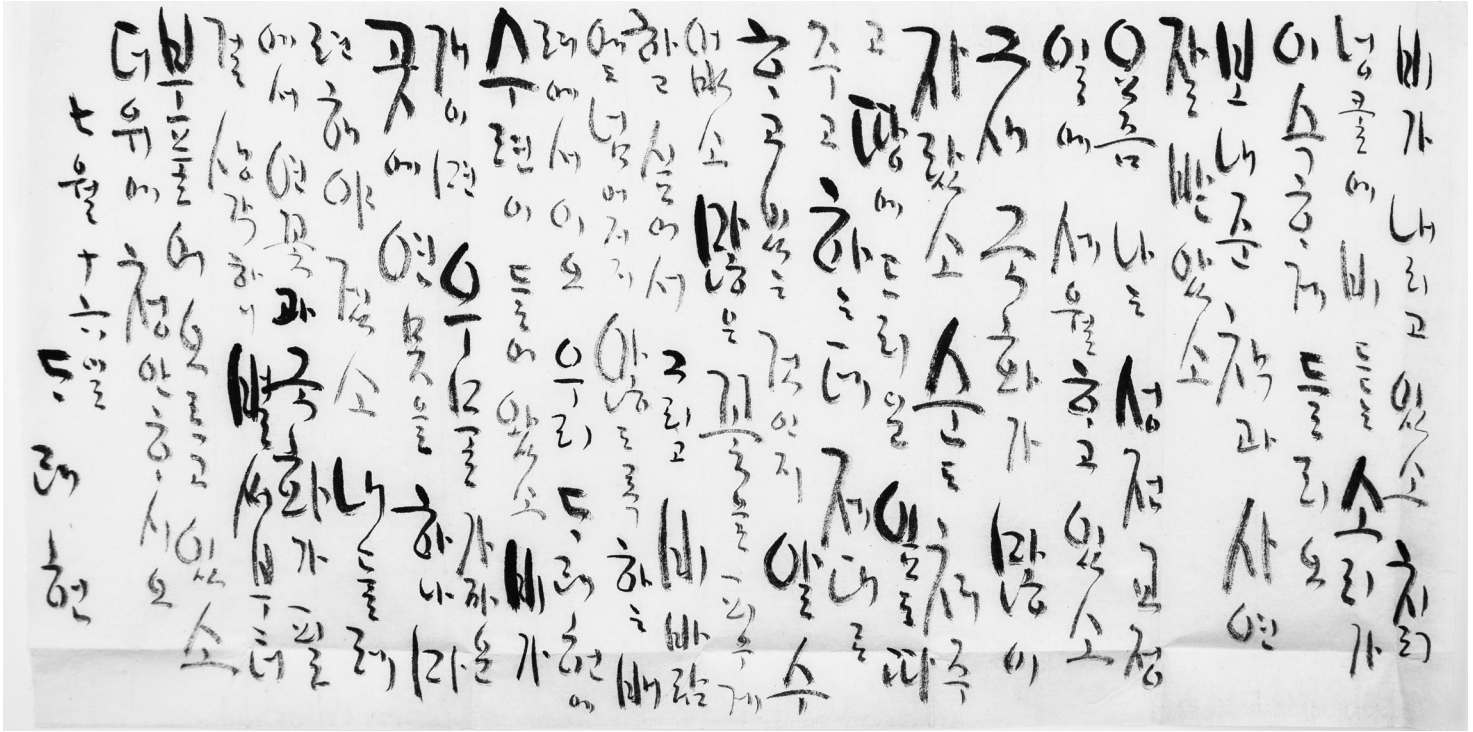
용맹한 장부이신 관자재보살
 중생을 위해 이 산에 계시니
 찾아가서 모든 공덕 물어보아라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주리라.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듣고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가섭불迦葉佛·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구류손불拘留孫佛·시기
 불尸葉佛·비바시불毘婆尸佛 : 지난 세상에 출현한 부처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 또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
 誓願으로 하는 보살. 관자재라 함은 지혜로 관조觀照하므로 자재한 묘과
 妙果를 얻은 이라는 뜻. 관세음이란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이라는 뜻. 미타
 삼존彌陀三尊의 하나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왼쪽 보처補處.

4. 법정 스님 편지



비가 내리고 있소

침녕쿨에 비 듣는 소리가 이슬하게 들리오

보내준 책과 사연 잘 받았소

요즘 나는 성전 교정일에 세월하고 있소

그새 국화가 많이 자랐소

순도 쳐주고 땅에 드리운 잎도 따주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소

많은 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에서이오

우리 다래헌에 수련이 들어왔소

비가 개이면 우물 가까운 곳에

연못을 하나 마련해야겠소

내 들레에서 연꽃과 국화가 필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부풀어 오르고 있소

더위에 청안하시오

7월 16일

다래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백정암 반야화 보살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오두막 편지

절기로 오늘이 하지夏至다. 여름철 안거도 어느새 절반이 되었구나. 그동안 아주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든다. 모처럼 산거(山居)의 한적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별밭에 눈길을 보내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도 보았다.

그토록 머리 무겁게 생각해 오던 방 뜯어고치는 일을 감행했다. 이 궁벽한 산중에서 방을 뜯어고치는 일은 여간 힘들고 머리 무거운 일이 아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보다 아궁이로 내뿜는 연기가 더 많을 정도로 불이 들이지 않았다. 아랫목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프라이팬처럼 뜨거워도 윗목은 냉랭하고 습해서 집을 비워두면 곰팡이가 슬었다.

이번에는 아예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바꾸고 방구들을 다시 놓았다. 다행히 불이 잘 들이고 방이 고르게 덩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실한 일꾼과 나는 온돌방의 묘리(妙理)를 제대로 터득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소 겪는 체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원리와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일은 비단 방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인간사 전반에 걸쳐

해당될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안으로 눈이 열리기 어렵다.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새 길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의 과정에서 볼 때 한때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던지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다.

며칠 전에 도배를 마쳤는데, 아직 빈 방인 채 그대로 있다. 방석이나 경상, 다구茶具 등 아무것도 들여 놓지 않았다. 나는 이 빈 방의 상태가 좋다. 거치적거릴 게 없는 텅 빈 공간이 넉넉해서 좋다. 얼마쯤의 불편과 아쉬움이 오히려 즐길 만하다. 물론 언제까지고 빈 방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기간을 자꾸만 연장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집 짓는 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영은 대었는지 궁금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붕을 덮어 놓아야 나머지 일은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나 같으면 벌써 일을 마쳤을 텐데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니 그 저력이 대단하구나. 상량을 한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는데 두 칸 방 집을 짓는 그 진행이 너무 더디다. 물론 날씨와 그럴 만한 현장의 사정이 있을 줄 안다.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그 일의 결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자원봉사 명분으로 불러다 쓰는 공양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와 신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은施恩을 많이 입게 되면 그 타성에 젖어 정진이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방 두 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과 시간과 시은을 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상량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나는 그 두 칸 흙집이 진정한

수행자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야유몽자 불입夜有夢子不入 구무설자 당주口無舌者當住. 밤에 꿈이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머무를 수 있다.

밤에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다. 수행자는 가진 것이 적듯이 생각도 질박하고 단순해야 한다. 따라서 밤에 꿈이 없어야 한다. 또 수행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

나는 그 두 칸 흙집 자체가 질박하고 단순한 수행자의 모습을 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문명의 연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넘치는 물량을 받아 쓰느라고 순간순간 수행자의 덕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라.

이 기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 그 수행자의 집에는 아예 전기를 끌어들이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전기가 들어가면 곁들여 따라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화도 필요 없어야 한다. 편리함을 따르면 사람이 약아 빠진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곧 도 닦는 일임을 알아라.

둘,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수도가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따라가고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암자의 샘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면 될 것이다. 그 집에는 차 외에는 마실 것도 두지를 말아라. 찻잔은 세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으면 그 집에 어울리지도 않고 소란스러워 차의 정신인 청적淸寂에 어긋난다.

셋, 그 수행자의 거처를 ‘서전西殿’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위치가 암자의 서쪽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의 청정한 생활규범인 서래가풍西來家風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의 집에는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넷, 그 수행자의 집에 거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 세 시에 일어나고 밤 열 시 이전에는 눕지 말아라. 새벽 예불은 수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잔소리가 길어졌구나.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잔소리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세태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여건 아래서 집 짓느라고 고생한 그 공덕은, 그 집을 의지해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두고두고 회향될 것이다. 집 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일찍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상에 당부한 사항을 지키는 수행자라면 우리는 한 부처님의 제자로 같은 길을 가는 길벗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할지라도 뜻은 십만팔천 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옛사람의 말을 안으로 새기면서 이 사연을 마친다.

‘입 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처음 세속의 집을 등지고 출가할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말라!

1998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새와 나무

여기 바람 한 점 없는 산속에 서면

나무들은 움직임 없이 고요한데

어떤 나뭇가지 하나만 흔들린다

그것은 새가 그 위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별일없이 살아가는 못사람들 속에서

오직 나만 홀로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새는 그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나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만

나만 홀로 끝없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집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발식당을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6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숲기행 일정 안내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 7월은 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휴회합니다.

●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 소	접수일
8월 24일(토)	전남 해남 우수영, 무안 회산 백련지	8월 1일(목)
9월 28일(토)	경남 합천 해인사	9월 2일(월)
10월 26일(토)	경북 김천 직지사	10월 1일(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참가 신청은 중앙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투고 안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원님의 귀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중앙모임과 각 지역 모임(대구, 광주, 경남모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신행 활동을 하시면서 순간 순간 떠오르는 느낌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드러내지 않고 실천했던 활동 속에서 가슴 찡하게 느낀 속마음을 글로 나눠 주세요. 또는 자연의 소중함이나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기를 권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월간 소식지에 수록된 분에게는 법정 스님 저서 '무소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 **원고 규격, 분량** : 한글 문서 기준 1,400자 내외(A4용지, 글씨 크기 10pt 1쪽 분량) 산문 형식
- **접수 방법** : 글 쓰신 분의 간략 소개, 활동하시는 내용 소개와 더불어 원고를 clean94@hanmail.net 메일 접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 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7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 법회 및 초삼일 신중기도

- 일시 : 7월 6일(토)~7월 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주지스님 법문과 기도 집전합니다.

보름기도

-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7월 2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7월 29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천도재 49재 안내

초재	7월 7일(일)
2재	7월 14일(일)
3재	7월 21일(일)
4재	7월 28일(일)
5재	8월 4일(일)
6재	8월 11일(일)
막재	8월 18일(일)

- 일시 및 장소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 원)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

헤민 스님 초청 일요가족법회

- 일시 : 7월 21일(셋째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하안거 해제 법회

- 일시 : 8월 18일(셋째일) 오전 11시 ● 법사 : 덕조 스님

마가 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 정 : 매주 토·일요일 14:00~16:00 / 설법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외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QR코드 스캔-URL 접속가능)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